■ 경제·무역·사회 세계 지표로 본 대한민국

부끄러운 상위권 수두룩

세계 13위 경제규모 비해 경쟁력 크게 뒤져

사교육비 2위

도시생계비 3위

고통지수 3위

양주수입 4위

⋮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교역액, 세계 제일의 선박, D램 반도체, TFT-LCD 생산, 4위의 인구대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IT산업과 수출이 이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순위들이지만 세계 속의 한국을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위권' 순위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가 국제기구와 전문기관들의 최근 통계를 토대로 작성해 30일 발표한 '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8천874억달러), 교역액은 12위(6천349억달러)로 큰 틀의 경제적 위상은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선박과 D램, TFT-LCD 등 전통적 우위를 보여온 품목은 물론 조강생산량, 화섬생산량, 자동차생산량 등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박, 스티렌은 수출액 세계 1위, 반도체 트랜지스터, 컴퓨터, 인조섬유직물, 합성섬유 등의 수출은 세계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29.1명으로 덴마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 등 '강소국들'에 이어 세계 4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화지수는 스웨덴, 미국에 이어 3위에 각각 오르는 등 정보통신 강국의 면모도 재확인됐다.

그러나 교육이나 환경, 국민생활 등 분야에서는 미흡한 기록도 많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6천410달러(2003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세계 20위에 그친 반면 민간부문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즉 사교육비는 GDP의 2.9%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29위, 유엔 인간개발지수(HDI)는 26위, 유엔여성개발지수(GDI)는 26위,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지수는 34위에 각각 그쳐 경제 규모에 비해 총체적인 경쟁력이나 인간개발지수는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7로 일본·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 도시생계비(서울)와 아파트 임대료 역시 각각 모스크바와 런던·홍콩에만 뒤지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치위스키 수입액 4위, 원유수입액 세계 5위, 반덤핑 피소 건수 5위, 관광지출 10위, GDP 대비 산업폐기물 배출량 9위 등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상위권 순위인 것은 마찬가지.

반면에 인구증가율(105위), 토플점수(77위), 관광수입(31위), 대체에너지 생산(43위) 등은 좀더 순위가 올라야 할 분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한국 사교육비 부담 OECD국 평균 4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계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평균(0.7%)보다 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총교육비(공공교육비+민간교육비) 비중도 7.5%로 미국(7.4%)과 비슷하다.

아이슬란드(8%)보다는 낮지만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담 비중이 90%로 민간부담 비중이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중이 40%로 OECD 평균(12%)의 3배를 넘는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2004년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학교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포인트나 떨어졌다. /연합뉴스

3주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1弗=906.70… 환율은 10년만에 최저

코스피지수가 3주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86포인트(1.72%) 오른 2,062.92로 장을 마감, 종전 최고치인 지난 11일의 2,058.85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8.25포인트(1.03%) 오른 807.31로 마감해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다.

은행, 증권 등의 금융업종과 조선, 해운, 철강 등의 '중국 수혜주' 그리고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자동차, IT주 등이 고르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번주 중반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랫만에 1천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으로 인한 수급 개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소외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급 측면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 빠져나가던 시중자금이 최근 중국 증시가 주춤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 돌아온 것에 더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호전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날 IT, 은행, 자동차 등 그 동안 소외됐던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삼성증권의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그 동안 중국 수혜주의 단기 급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IT, 자동차, 은행 등 소외주들이 상승 행렬에 동참하며 순환매를 연출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3.20원 하락한 906.7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97년 9월4일의 906.30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직장인 5명중 3명 "영어 스트레스"

직장인 5명 중 3명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인해 골치 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몬과 함께 직장인 1천75명을 대상으로 영어스트레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가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영어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른 직장인들과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에'(46.3%)라고 밝혔다.

다른 이들은 '영어능력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27.6%), 혹은 '회사에서 영어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12.3%), '영어 성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돼 승진에 지장 있을 것 같아서'(10.7%)라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 31.4%는 영어나 외국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올 최고 성장산업은 "금융·보험업"

증시활황·펀드가입 붐 13.9%

교육서비스업은 1%대 저성장

증시활황과 펀드 가입의 열기 속에 금융·보험업이 올해 10%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교육 열풍에도 교육비 지출이 해외로 상당부분 빠져나간데다 학생수의 감소로 교육서비스업은 성장률이 1%대에 머물면서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금융·보험업의 작년 동기대비 성장률(실질 기준)은 9.6%를 나타내 1차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보험업은 특히 1분기에 4.3% 성장한데 이어 2분기에는 9.7%로 높아졌으며 3분기에는 무려 13.9%의 초고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금융·보험업의 분기 성장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신용카드 남발이 극심했던 2002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금융보험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증시활황과 펀드 열풍, 그리고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로 1~9월중 8.4% 성장했다. 보건·사회복지사업은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의료부문에 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년째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올들어 3분기까지 누계로 5.8% 성장했으며 제조업 성장률은 5.4%였다. /연합뉴스

'하우젠 오븐' 출시 기념 요리 페스티벌 삼성전자는 한국 요리 기능을 강화한 '08년형 하우젠 오븐' 출시를 기념해 한국 요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하우젠 오븐 한국 요리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18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남산N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병원도 조사

권오승 공정위장 시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조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특진제 등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리베이트를 받은)병원이나 약국, 도매상 등의 상대는 얘기 안 하고 제약사만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시 병원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면 될 일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제 와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제약업계의 반응에 대해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정에서 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하더라"면서 "자신들도 불법 관행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공정위가 조사해줘서 자정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삼성, 前 간부 계좌에 50억 비자금 관리"

前 법무팀장 양심 선언

삼성측 "회삿돈 아니다"

삼성그룹이 본인 동의 없이 전직 간부의 계좌를 개설해 이 계좌를 통해 5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변호사)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50억원대로 추정되는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왔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200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에는 1억8천여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연이율을 4.5%로 계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삼성그룹은 "해당 계좌의 돈은 삼성과 관계없는 개인돈"이라고 29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삼성그룹의 회사 자금이나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 제 3자의 개인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10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는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천200만원씩 지급받는 등 적지 않은 예우를 받았다"며 "퇴사 후 전 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1997년부터 7년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서 일했으며 상무까지 지낸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자 허리 휜다

차상위층 의료보장 떠안아… 2년간 7,248억 더 부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요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에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향후 2년 간 7천248억 원을 추가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 보건복지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전액 국가지원으로 지탱되는 의료급여재정이 최근 진료비 급증으로 위기에 빠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7천70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가,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천500여 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천760여 명의 18세 미만 아동(이상 2종 수급권자) 등 그간 의료급여를 통해 국가 의료혜택을 받던 총 20만980여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떠맡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지게 돼 당장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은 2천755억 원에 이어 2009년에는 7천248억원(누적액수)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복지부가 올해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가격)인상, 자연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현정은회장 訪北… 대북사업 논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 논의차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4박 5일간 방북한다.

29일 현대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베이징을 경유,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며 체류 기간에 백두산 등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경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 회장은 이로써 이번 달에만 두번째 평양을 찾게되는 셈이다. 앞서 현 회장은 2004년 5월과 2005년 6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현대 관계자는 "현 회장의 방북을 위해 이미 지난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방북해 북측 관계자들과 논의 주제 등을 조율한 상태"라면서 "이후 북측으로 30일 방북해달라는 확답을 받아 방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